



빛

꽃

그리고



맛

천하일미 가을 유혹...광양이 부른다



8~11일 광양읍서천변 일대

참숯화로 은은한 향에 빠지고 불꽃쇼·코스모스 '힐링 절로' 록페스티벌·태진아 공연 등 먹고 보고 즐기고 '3색 만족'

광양숯불구이 축제가 8일부터 11일까지 코스모스가 만개한 광양읍 서천변 일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열린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빛과 꽃 그리고 맛의 어울림'이란 슬로건으로 개최한다. 숯불구이축제는 광양 일미(一味)인 광양 불고기에 코스모스와 문화예술 행사 등 불거리, 즐길거리를 더한 축제다.

◇천하일미 마로화적 광양불고기=청동화로에 참숯을 피워 구리 석쇠에 구워낸 광양불고기는 '천하일미 마로화적'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전통음식이다. 마로는 광양의 옛 이름, 화적은 불화(火)에 고기구이 적(炙)을 써서 이름 그대로 불고기를 이르는 말이다.

광양으로 유배 온 선비들이 귀양에서 풀려나 다시 관직으로 복귀한 뒤에도 광양에서 먹던 불고기 맛을 못 잊어 이렇게 읊조린 데서 연유했다고 한다. 맛의 비결은 얇게 다진 소고기와 집집이 특색 있는 양념을 버무려 백운산 참숯을 담은 화로 위에 구운 데 있다.

참숯이 탈 때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이 육질에 스며들면서 훈연의 맛이 나아진 진짜 광양불

고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광양시는 광양불고기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축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광양읍 서천변 일원을 불고기 특화거리로 지정했다.

이곳은 현재 불고기 전문업소 9개소를 비롯한 40여개소의 불고기 음식점이 들어서 있고, 광양의 맛을 느끼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이 줄을 이을 정도로 맛의 명소가 됐다.

◇맛지 못할 맛있는 추억, 먹고 보고 느끼고=숯불구이축제는 광양 대표 가을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차별화된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지역민과 관광객, 어른과 젊은이가 함께 만들어내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1600여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불고기보존협회가 품질을 인증한 8개 업체에서 관광객과 시민에게 질 좋은 광양숯불구이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연다.

축제 첫날에는 사전 행사로 코스모스 가요제와 선사인팝오케스트라, 가수 '태진아'의 축하공연 등으로 흥을 돋울 예정이다.

9일 열리는 축제 개막식에서는 화려한 불꽃쇼와

젊은 함성의 축제인 'Rock Festival'이 열린다.

10일에는 관광객들이 불고기 장인들이 만들어 낸 숯불구이를 직접 먹어보고 순위를 가리는 음식 서바이벌 '최고의 맛을 찾아라'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펼쳐진다.

축제 사이사이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 공연도 감칠맛 나는 즐길거리다. 축제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포에버월드 오케스트라, 청소년 페스티벌 등으로 막을 내린다.

◇형형색색의 코스모스, 춤추는 음악분수대=광양시는 광양숯불구이축제에 참여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축제장인 서천변을 따라 7만여㎡에 코스모스 단지와 산책로를 미리 조성했다. 천변 좌우로 1km 구간이 펼쳐진 코스모스 물결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코스모스 길을 걷다 보면 야간에는 무지개 분수대가 관광객들을 반긴다.

남기호 광양숯불구이축제 조직위원장은 "코스모스 꽃밭의 화려함과 서천변 고수부지는 가을의 정취와 추억을 안겨줄 것"이라며 "광양숯불구이축제를 광양의 맛과 풍경, 인심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성황·도이지구 개발 본격 추진 3100세대 규모 심의 승인·고시

광양시가 3100세대 규모의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양시는 1일 "전남도에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환경영향평가 후 추후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성황마을을 일원 개발을 목표로 지난 2009년 11월 20일 43만 5600㎡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이마을 일원까지 추가편입 했다. 이에 따라 개발면적도 예초보다 21만5170㎡ 증가한 65만770㎡로 늘어났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3100세대 8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생활기반이 구축돼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주여건 개선으로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과 국가·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황마을은 어사 박문수(朴文秀)가 1727년 무렵 지나가면서 '조선지제일향'이라고 예찬할 정도로 살기가 마을로 명성이 높은 곳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한옥과 숲이 어우러진 햇빛고을 광양' 도시재생 공모사업 최종 선정

'한옥과 숲이 어우러진 햇빛고을 광양'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국 79개 지역 지자체가 공모한 이번 사업은 평가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평가로 진행됐다.

광양시는 1일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으로 50억 원의 국비 확보와 함께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시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을 들여 광양읍 원도심에 ▲너른마당과 한옥이 어우러진 주거재생사업(25억 원) ▲도시숲과 도시텃밭이 어우러진 녹색재생사업(22억 원) ▲문화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상가재생사업(22억 원) ▲역사상과 정체성이 어우러진 역사재생사업(22억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또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전남도립미술관,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광양읍성 복원, 매천로 한전지중화사업,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사업과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정현복 시장은 "광양읍 정체성 회복과 원도심을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켜 읍 권역 인구를 1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광양=배영재기자 byj@

광양시,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

국내 두번째 인증 준비 박차

광양시가 전남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하는 등 민선 6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광양시는 1일 "모든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란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정책 10가지 원칙을 성실히 이행해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뜻한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1300여개 도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광양시가 처음으로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광양시민의 평균 연령은 37.3세로 18세 미만 아동이 21%를 차지하는 등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서 점에서 인증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광양시의 설명이다.

유니세프는 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 창립된 유엔기구로 인증, 종교, 국적, 성별과 관계없이 위기의 아이들을 보호·지원하는 한편 아동권리 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양시는 민선 6기 역점시책으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며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준비에 착수해 추진중이다.

광양시는 지난 14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주

관하고 전국 27개 지자체가 참여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아동친화도시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10가지 원칙과 46개 인증지표를 평가받을 근거 마련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최근 서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관내 보육·아동 관련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어린이 대표 등과 협약을 갖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Advertisement for KBS1TV '아침마당' featuring a wedding and a list of members for the 'Imperial Club'.

Advertisement for 'Primo' (프리모) featuring a list of members and a promotion for a 59,000 won product.